

중앙아시아 고려인 문학에 나타난 월남

Kim Pil-young,
Kangnam University

1. 머리말

중앙아시아 고려인 문학이란 중앙아시아에 거주하는 고려인 작가가 고려인 독자들을 위해 그들의 민족어인 고려말로 창작하여 발표한 작품을 뜻한다(김필영 1998: 110). 이들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은 소련 공산당 총서기 스탈린에 의해 1937년 소련 원동에서 카작스탄과 우즈베키스탄으로 강제 이주된 이들이다.

이 논문의 목적은 소련 시절 중앙아시아 고려인 사회의 유일한 고려말 신문이었던 «레닌기치»에 실린 문학 작품 가운데 월남을 배경으로 창작된 시, 소설, 희곡을 살펴보고 그 주제를 알아보는 데 있다. 중앙아시아 고려인 사회와 월남 사이에 직접적인 교류는 없었지만 1960년대 초에 일어난 월남내전에 미국이 개입하면서 월남전에 관한 소식이 소련의 언론매체에 자주 등장하면서 고려인 작가들이 월남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고려인 작가들이 월남을 문학 창작의 제재로 삼게 된 주된 이유는 소련의 문학창작 방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사회적 사실주의를 표방한 문학 창작을 주창한 소련 공산당의 취지에 따라 소련 작가들은 월남의 내전에 개입한 미국 제국주의자를 비판하는 작품을 창작하게 되었다.

2. 작품에 나타난 주제

작품의 이해를 위하여 월남전쟁의 전후 내막을 소개한다. 1880년대부터 프랑스의 식민통치를 받아왔던 베트남은 1945년 독립을 선언하고 같은 해 9월에 ‘베트남 민주공화국’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프랑스군은 1946년에서 1954년까지 베트남독립동맹인 ‘베트민’ 군과

전쟁을 전개하여 제 1차 인도차이나 전쟁을 발발시켰다. 그러나 1954년 5월 프랑스군의 거점인 디엔 비엔 푸의 함락으로 인해 같은 해 7월 휴전을 위한 제네바 협정이 체결되었다.

협정의 내용은 북위 17도선을 잠정적 군사경계선으로 정하고, 2년 후에 전국적으로 선거를 실시하여 통일국가를 수립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1955년 남베트남에 고 딘 디엠 정부가 수립되자 이에 반대하는 공산분자들은 테러 공격을 감행하였고, 1960년 12월에는 남베트남에서 ‘남베트남 해방민족전선’인 ‘베트콩’을 결성하였다.

베트콩들은 호치민이 이끄는 ‘베트남 민주공화국’(북베트남)의 원조를 받아 더욱 세력을 확장하였고, 선거를 통해 베트남 전역을 장악할 수 없게 된 공산 측은 군사적인 수단을 사용하기에 이르렀다. 1961년 미국 대통령 케네디는 처음으로 미국 정규군을 파견하여 베트남에서 전쟁을 전개하였다. 이는 남베트남의 공산화는 동남아시아 전체의 공산화를 가져온다는 견지에서 취해진 미국의 대공산주의 봉쇄전략의 일환이었다.

이러 존슨 정부는 1964년의 통킹만 사건(미국 구축함에 대한 북베트남의 어뢰정 공격)을 계기로 미군을 직접 전투에 참가시켰다. 1965년에는 북폭을 개시하였으며, 1968년까지는 미 지상군의 투입도 54만 명으로 확대되었고 전쟁비용 또한 54억 달러에서 288억 달러로 늘어났다. 한편 1968년 5월부터 평화교섭을 위한 파리회담이 계속되었으나, 전황은 캄보디아(1970), 라오스(1971)로 확대되어 제2차 인도차이나 전쟁의 양상을 띠기에 이르렀다. 한편 한국을 비롯해 타이, 오스트레일리아, 필리핀, 뉴질랜드 등 우방국이 참전하였으나, 군사적으로 승리를 거두지 못하였다.

결국 1973년 1월 27일 베트남에서의 전쟁종결과 평화회복에 관한 파리협정이 미국, 남베트남, 북베트남, 베트남 남부 공화임시혁명정부의 4자 간에 체결되었다. 협정은 1) 미군의 철수, 2) 전쟁포로의 송환, 3) 현상대로의 정전, 4) 남베트남에서의 사이공 정부와 임시혁명 정부 간에 연합정부 조직을 위한 협의, 5) 정치범의 석방 등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북베트남과 이들의 지원을 받는 베트남 남부 임시혁명정부는 1975년 4월 말 사이공을 점령함으로써 베트남을 적화 통일하였다. 베트남 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의 전쟁으로, 인적 희생도 커서 사망자 약 120만 명, 부상자 약 300-400만 명에 달하였다.

2.1. 내전에 개입한 미국에 대한 비난

당시 소련의 언론매체는 월남 내전에 개입한 미국을 신랄하게 비난하였다. 《레닌기치》 신문 역시 이러한 소련의 정세를 반영하여 “웨트남 민주주의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침략행동을 저지시키자!”(1965년 3월 5일자)라든가 “인도지나에서 미국의 만행을 규탄하는 세계 사회의 목소리”(1965년 2월 10일자)라는 구호를 신문 상단에 큰 글자로 넣어 미국을 비판하였다. 소련 공산당 및 노동당 협상 회견 참가자들이 월남 사변에 대한 성명(《레닌기치》 1965년 3월 5일자)을 발표하였는데 일부를 원문대로 소개한다.

남부 베트남 애국자들의 해방운동을 억압하려다 패배를 당한 미 제국주의는 베트남 민주주의 공화국에 대한 로골적인 침략의 길에 들어섰다. 미국 군벌은 국제법의 초보적 규범마저 유린하면서 가장 잔폭하고 로골적인 형식으로 식민주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사회주의 베트남 령토의 주민 지점들에 대한 야만적 폭격은 전체 국제 정세를 몹시 복잡케 만드는 새 정황을 동남아시아에다 조성하고 있다.

위 성명에서 소련은 미국이 월남에서 군대를 철거시키고 침공을 중지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고려인 문학 작품에도 반영되어 한국전쟁에 관여한 바 있는 미국을 월남전에 개입한 미국의 형상과 결부시켜 미국이 하루속히 월남에서 물러날 것을 종용하고 있다. 아래 인용하는 시에 나타난 것처럼 월남전쟁을 한국전쟁과 결부시킨 것은 작가가 소련 공민이기 전에 고려인이라는 특수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말해라! 양키들아,
해방의 봄을 맞은 조선이
새 살림 꾸리고 있을 때
너희들은 뭘 했더냐,
즐개 매국 역도들을 앞 세우고
삼천리 강산을 재'더미 만들어
어머니들이 재 속에서
자식들 빼조차 못 찾게 한
살인귀 너희들이 아녔더냐

어디보자, 그뿐인가?
너희들은 베트남에서도 달려 들어
백주에 날강도질 하지 않느냐.
정의의 해방전에 일떠선
남베트남 인민이
악명 높은 너희들에게
불벼락을 내려 씌우니
그 성푸리로 피 묻은 손을
동남 아시아에서
첫 자유의 꽃피우는
북베트남에까지 뻗히려느냐?

(.....)

저주로운 양키들아,
손을 떼라!
너희들의 즐거움을 데리고
냉큼 물러 가라,
꽁고에서
남 베트남에서!
김세일의 <손을 떼라! 월남에서, 꽁고에서> 일부
신생의 길에 들어선 북조선에
파괴와 죽음을 뿌리던
미국 폭격기들의 만행을
회상하며
나뽀탄의
불바다 속에서 타는
거리와
집들과

시체들을 회상하며
수술대 위에서
원쑤를 저주하며
부릅뜬 눈으로 숨 거두던
오늘은
남부 베트남 사람들의 머리 위에
독가스까지 뿌리는
살인귀-
미제의 만행에
격분하여
그는 부르짖는다.
- 베트남에서 손을 떼라!
(.....)
정민의 <베트남에서 손을 떼라!> 일부

다른 시에서는 월남은 월남사람들의 월남이니 어느 누구도 간섭할 권리가 없음을 강조하며 미국이 월남내전에 간섭하는 것을 비판하며 하루 바삐 물리갈 것을 외친다.

양끼들아, 너희들은
새 생활이 꽃피는 나라 -
인민 베트남에 달려들어
도시와 농촌을 불사르고
무고한 양민을 살해하니
너희는 백주 강도요
너희는 인간 백정.
그 죄를 이루 다 말할 수 없고나!

(.....)
양끼들아, 들으라!

최후의 선고가 내리기 전에,

불 벼락이 떨어지기 전에.

피묻은 그 발톱을 떼라,

남북 베트남에서.

하루 바빠 물러가라,

대양 건너 너의 집으로!

박창익의 <양끼들아 하루 바빠 물러가라> 일부

미국을 향해 무슨 까닭에 남의 땅을 침범하여 무모하게 죽음을 퍼붓느냐며 “양키야, 물러가라! / 집으로 돌아가라! / 피 묻은 칼 던지고 / 악마의 춤 끊쳐라!”(연성용의 <양키야, 대답하라>)며 남북 월남이 다시 한 가정이 되어 부모와 자식이 다시 만나고 끓어 넘치는 애정 속에서 잃었던 사랑을 되찾을 수 있도록 미국이 전쟁에서 손을 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2.2. 양민을 살해하는 미군에 대한 분개심

월남전쟁의 전후 사정을 소개하면서 이미 밝힌 바 있지만, 월남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무고한 양민들이 학살당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레닌기치» 지면에서도 양민을 보호하자는 구호들이 자주 등장하였는데 “베트남 인민을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으로부터 옹호하자”(«레닌기치» 1965년 4월 10일자)라는 글의 일부를 소개한다.

아프리카 및 아시아 인민들, 그리고 자유와 정의의 위업을 귀중히 여기는 전체 인민들은 베트남에 대한 미국의 침략을 분노심으로 규탄하며 베트남 인민을 물심 양면으로 원조함으로써 미군철거 및 베트남의 통일과 독립을 담보하는 제네와협정 준수를 달성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구호와 함께 내전에 개입한 미국 군에 의해 살해당한 아이들과 어머니들을 구원하자는 부르짖음이 고려인 문학작품의 중요한 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오늘 피에 주린 양키들이

북월의 하늘을 찢고 다닌다

평화로운 땅에 불을 내려
꽃피던 거리 타버리고
녀인들과 애들이 타 죽는다

폐허에 선 사람들은
애를 잃은 어머니들은
엄마를 잃은 어린이들은
증오 어린 눈으로 하늘을 쏘아 보며
입술을 깨물고 보복에 떨고 있다

(.....)

열 네 해 전 불타던 조선에서처럼
강력한 평화의 힘을 뭉쳐
날강도 양키들에게 죽음을 주자
그리고 월남의 어린이들을 구원하자!
김세일의 <월남 어린이를 구원하자> 일부

어린이와 여인들을 포함한 양민들이 학살 당하는 상황에서 “월남 벼 밭에 든 양키들이 / 남조선 터전에 달려든 양키들은 / 실로 곡식 밭에 든 무지한 돼지들이다”라며 “순진한 어린애들을 잡아 먹는 / 대양 건너온 돼지들을 어서 붙잡으라. / 목숨 걸고 싸우는 월남 용사들이여 / 지체 말고 어서 돼지들을 붙잡으라.”(우제국의 <밭에 든 돼지를 잡으라>)며 불행에 빠진 월남인들을 도와 줄 것을 강조하거나, 하루 바빠 간악한 미제를 몰아내라며 “아들아, 가거라, 가거라! / 난 정치도, 과학도 모르는 / 보통 로동 녀자다만은 / 조국과 자유가 없이는 / 몬 산다는 그것을 안다”(김남석의 <월남 어머니>)며 전선에 동원된 아들을 기꺼운 마음으로 보내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형상화되기도 한다.

그러나 결국은 이러한 현실을 타개할 수 있도록, “오늘 신문에 실린 사진을 보라 / 쪼크라뜨린 어린애를 안고 / 원썬들이 짓밟은 향촌의

먼지'길에 주저 앉아 / 절망적인 설움에 묻혀 우는 / 남부 월남 녀인의 사진을 보라!”(리진의 <네가 누구든 어디서 살든>)며 절망적인 상황을 호소하며 인민들이 단결해서 싸울 것을 주장하거나, 피 흐르는 가슴에 어린애를 안고 불타는 마음을 바라보는 여인을 향해 “월남아! / 싸우는 월남아! / 네 든 기치 - / 정의의 기치를 / 승리의 그날까지 / 용감히 / 용감히 / 들고 나가라”(연성용의 <싸우는 월남아>)며 응원을 하기도 한다.

대개의 시들은 생사를 오가는 위태로운 상황에 놓이거나 이미 참혹하게 살해된 월남 어머니와 어린이를 연상시키는 시적 형상을 통해 독자로 하여금 월남인민에 대한 측은한 마음을 자아내는 동시에 미군의 만행에 대해 “피묻은 손에 성경을 든 / 20세기 미국의 깐니발”(김창욱의 <20세기의 깐니발>)이라며 분노심을 표출하고 있다.

2.3. 곤경에 처한 월남인민들을 돕기 위한 구호

고려인들에게는 본 적도 없고 가 본 적도 없는 먼 곳에 있는 월남의 도시와 항구들이지만, “내 가슴에 눈물이 있다면 무엇 때문에 있고 / 무엇 때문에 틀어쥔 주먹이 풀리지 않는가” 라며 “그대들의 분노에 우리의 분노를 더한다 / 원쑤에게 잃은 시간을 / 천으로 만으로 양갓으며 포탄을 깎는 / 그대들의 로력에 우리의 힘을 더한다. // (.....) 죽음을 주가 / 양키 백정들에게 - / 총검을 높이 추켜든 조선은 / 승리의 함성이 터져 흐르는 그대들 곁에 있다”(박세옥의 <월남에 드리는 노래>)며 고려인들이 월남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거나, “(.....) 나의 도움 보잘것 없을지라도 / 원쑤의 가슴을 뚫고나갈 / 몇알의 탄환은 되리니 / 싸우는 월남이여 / 승리의 그날까지 싸우라 / 용감히 용감히...”(조해룡의 <싸우는 월남이여>) 하며 응원을 한다.

이러한 구호는 소설(조정봉의 <도노르>)에서는 더욱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중등학교 졸업반인 여학생 김엘라는 동무들과 함께 월남에 보낼 헌혈에 참여한다. 그러나 엘라의 어머니는 몸이 여윈 딸이 헌혈 후 쓰러지기라도 할까 봐 걱정을 하며 헌혈에 극구 반대한다. 하지만 엘라는 헌혈을 단호하게 결심하며 어머니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 다른 나라들도 피로, 무장으로, 의약품으로 도와주고 있는데요... 보내줄 수 있는 것은 아낌없이 죄다 보내줘야 해요. 엄마 좀 생각해 보세요! 설움 많은 월남의 형제자매들은 자기의 운명, 자기의 자유만이 아니라 우리의 운명, 우리의 자유까지 피로, 목숨으로 옹호하고 있지

않아요? 그들은 소위 “자유세계”와 사회주의세계의 판가리 싸움의 제 1선에서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과 그의 동맹국들의 연합세력과 맞다들려 영웅적으로 싸우고 있으니 말이에요! 우리가 혼전만전 잘 먹고 잘 입고 살고 있지만 지구상 여기저기서 애국자들의 피가 흐르고 있는한 참다운 가정의 단란이나 진실한 개체의 행복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 저... 갈라랑... 나따사랑... 자원적으로 피를 주기로 결심했지요...

딸의 건강을 걱정하며 헌혈을 반대하는 어머니와는 반대로, 딸의 결심에 질세라 신문을 보고 있던 엘라의 아버지 역시 월남을 도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며 다음과 같이 자신을 생각을 밝힌다.

- 어찌 피뿐이겠느냐! 필요하다면 목숨이라도 바쳐야지! 래일이라도 월남에 가서 싸울 지원자들을 모집한다면 나도 선뜻 나설테다! 홍하의 기슭이나 메콩강 기슭에 가서 공동의 원쑤와 맞다들며 싸우다가 야자수 숲 속에 고향이 되더라도 말이다! 내 오전에도 영화구경 갔다가 사격실에 들어가서 공기초이라도 땃방 쏘보았다. 아직도 그만하면 빠르찌산으로는 손색이 없겠더라... 기특한 애야! 이 세기 량심의 호소를 받들어 어서 가서 피를 줘라! 인간애의 향기 그윽한 그 피를!

딸과 남편의 결심을 보고는 헌혈을 만류하던 어머니마저 “그리구 애야! 우리내 같이 룽십에 가까운 사람들의 피도 받아주는지 꼭 물어보아라!” 하며 마음을 바꾸게 된다.

이러한 월남을 돕자는 구호 덕분에 “월남은 이미 울지 않는다 / 언제나 무릎을 꿇지 않는다 / 한 포기의 풀이나 / 한 줌의 흙까지 / 나라를 위하여 / 슬기롭게 싸운다 // 오늘의 온 세계는 무한한 동정과 흠모를 월남에 보내며 / 우리나라 인민과 같은 벗들은 / 도움의 더운 손을 / 굳건히 내밀어요”(강태수의 <그때는 오구말고요>)라든가 “못된 놈들이 / 또 영사막에 나타났구나 / 어찌 그저 영사막이라고만 하랴. / 미군놈들이 이 시각에도 / 저 지랄하겠으니 / 가만 있을 수 없다 - / 피를 달라면/ 피를 주고 / 함께 싸워달라면 / 몸 바쳐 싸우리니”(김광현의 <동무들이여, 형제들을 돕자?)라며 온 세계의 도움을 확신하고 있다.

2.4. 월남전을 통한 한국의 사회상 폭로

미국이 월남내전에 개입하면서 미국의 요청으로 한국을 포함한 몇 국가에서 군대를 파견하여 월남내전에 참가하게 된다. 이를 계기로 중앙아시아 고려인 작가들은 월남전에 참가한 한국의 고용병들을 통하여

가난과 기아에 시달리는 한국의 비극적인 사회상을 선전하며 남부 월남 인민의 영웅적인 투쟁을 묘사하고 있다.

<고용병의 운명>(한진 1967)은 자신의 피를 팔아 앓고 있는 어머니를 부양하던 실직자 청년 철수가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 월남전에 지원하여, 월남의 수렵에서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인 피의 대가로 달러를 벌게 되지만 결국에는 자신도 전선에서 희생되고 만다는 내용의 작품이다. 당시 중앙아시아 고려인 문단은 굶주림 때문에 월남전에 참전한 철수와 같은 사람의 운명을 남조선 박정희 반민족 정권이 낳은 결과로 돌리며(김 이오시프 44) 월남전을 통해 당시 한국 사회의 부정적인 면을 폭로하고 있다. 작품의 마지막 부분에서, 죽음 앞에 선 한 월남 빨찌산 처녀가 국군 고용병 병사들과 자신을 위협하는 국군 대위를 향하여 늠름하게 외치는 아래 말에서 남부 월남 인민들의 굴하지 않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기도 한다.

저기 날아가는 인공위성을 보라!

세상은 정말 잘 살게 될 것이다. 너희들 같은 살인자들이 없어지고 세상은 참으로 행복하게 될 것이다. 추석날... 저 달에서 들려오는 인페르나치오날의 노래 소리가 들리느냐? 오라지 않아 저 달에는 쏘련 사람이 내릴 것이다. 바로 지금 이 시각에도 저 달로 날아 가는 쏘련 우주 비행기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죽었는가 저 달은 다 말해줄 것이다.

추석날에 사람들은 내무덤을 찾아 와서 꽃을 올리고 귀여운 삐오네르들이 나팔을 불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의 무덤을 찾아 올 사람은 세상에 없다. 추석날에도, 한식날에도 너희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희망의 오솔길>(김 지마, 1971) 역시 가난을 해결하기 위해 월남전에 지원한 주인공을 통해 한국의 사회상을 폭로하고 있다. 서울 주변의 판자집에 만수라는 병든 노인과 그의 아들인 인력거군 유석이 살고 있다. 그 이웃 토굴막에서는 신애라는 노파와 가의 아들 봉춘이 살고 있다. 이 판자집과 토굴막에도 고용병 징모바람이 불고 이에 반대한 죄로 봉춘이 검거되어 감옥으로 간다. 유석에게는 정림이라는 사랑하는 처녀가 있다. 정림은 약침쟁이 어머니의 빚 때문에 허팔이라는 자본가에게 하녀로 팔려가서 나중에는 그의 처가 되라는 강요를 받는다. 유석은 자기의 사랑하는 애인 정림을 구하려고 돈과 명예를 얻으려고

아버지의 강경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용병으로 월남으로 가게 된다. 월남전쟁의 한 토막을 보여주는 장면에서 유석은 빨갱이의 아버지라는 죄명을 띤 월남노인을 총살하라는 명령을 받고 동요할 뿐 아니라 월남노인에게 도망칠 기회까지 준다. 그러나 이 노인은 자기는 얼마 살지 못하며 자기가 도망을 가면 젊은이가 어떻게 될까 걱정하며 도망치기를 거절한다. 결국을 한국 고용병 장교의 강요로 유석은 노인을 총살하고 만다. 동요는 빨갱이보다 더 위험하다는 이유로 장교는 유석을 총살한다. 연극의 종말에서 남조선 노동자들과 대학생들의 파업과 시위의 결과로 봉준이는 감옥에서 석방되고 만수 영감이 남몰래 모아 두었던 돈으로 정림이가 부자의 집에서 풀려 나오고 만수 영감은 아들 유석의 유골을 받으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 자식들아! ... 이 땅우에 신음소리 대신 노래소리가 떨치도록 너희들은 싸워라! 그 노래소리를 나는 혹시 못들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노래소리를 다른 사람이 들어도 좋다.

<고용병의 운명>이나 <희망의 오솔길> 모두 당시 소련사회에 팽배하고 있던 반미 여론을 반영하고 있으며, 가난 때문에 월남전에 지원한 한국 고용병을 통하여 한국의 참혹한 사회상을 고발하며 미국에 의해 자행된 살인적인 월남전쟁에 반대하는 당시 소비에트 고려인들의 생각을 묘사하고 있다.

2.5. 침략자 미국에 맞선 월남인민들의 해방 투쟁

월남전 초기에 창작된 고려인 문학작품에는 내전에 뛰어들어 미국에게 월남에서 떠날 것을 종용하거나, 무차별하게 양민을 학살하는 미군들을 증오하며, 곤경에 처한 이들 월남 인민들을 돕자는 외침을 주제로 한 작품이 대부분이었다. 월남전이 장기화되고 전쟁의 참상이 심각해지자 고려인 문단에도 침략자 미국을 직접 대항하여 민족해방을 꿈꾸는 베트콩들의 지하공작 활동을 주제로 삼은 작품이 등장하게 된다.

<월남의 서광>(김 니끼포르, 1968)은 부상당한 한 베트콩 빨찌산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민족해방투쟁을 묘사하고 있다. 고문 끝에 다 죽게 된 지하공작원이 당광민이 일하는 병원으로 실려온다. 당광민은 지하공작원의 신음소리 끝에 ‘월남의 서광’이란 말에 그가 19년동안 죽은 줄로만 알았던 청년 시절의 친구 레홍을 알아본다. 믹구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썬쑤양의 아내 판리윙도 역시 자기의 옛 애인이며 친구였던 레홍을 알아보고 고민한다. 판리윙은 조카와 딸의 도움으로

북부 월남에서 온 친구를 구원하기 위하여 병원을 습격하여 레홍을 빼내어 썸쑤앙 모르게 집 다락에 숨겨 놓는다.

병원 의사 당광민의 아내 느구엔꼬는 레홍이 병원에서 없어졌다는 사실을 썸쑤앙에게 말한다. 썸쑤앙의 딸 썸랑은 약방에 약을 구하러 나간 뒤 레홍의 건강상태를 살피러 당광민이 온다. 바깥을 내다보고 있던 썸쑤앙이 조카 호앙만이 썸쑤앙이 집으로 오고 있다는 말을 하자 사람들은 어쩔 줄을 모른다. 썸쑤앙은 사람들이 자기 집에 모인 것을 수상한 눈초리로 쳐다보며 당광민에게 만나기도 힘들게 바쁜 사람이 어떻게 남의 집에서 한가하게 있느냐고 비꼰다.

썸쑤앙이 레홍을 집에 숨겨 놓았는가를 묻자 관리원은 사실대로 말한다. 레홍이 내려와, 죽음이 두려워 양심을 팔고 미국 앞잡이가 된 작가 썸쑤앙에게 청년 시절 친구로 다시 돌아올 것을 믿는다며 사람들에게 승리하고 돌아오겠다고 작별을 고한다. 만일 오지 못하면 ‘월남의 서광’을 회상하라고 부탁한다. 그때 느구엔꼬가 자기 남편이 어디 있느냐며 들어오다가 레홍을 보고 질겁을 하며 밖으로 뛰어나가며 미국인 시찰원에게 레홍이 집안에 있다고 소리를 지른다.

시찰원은 사람을 시켜 집안을 뒤지게 하였으나 레홍이 이미 친구들의 도움으로 다락의 연통을 통해 사라진 뒤였다. 시찰원은 편지를 꺼내 보이며 썸쑤앙에게 영화촬영소 주임으로 임명된다는 소식을 전하며 레홍에 대해 묻는다. 하지만 과거를 뉘우친 썸쑤앙이 레홍의 거처를 모른다고 하자 시찰원은 모든 사람들을 체포하여 위수사령부로 데리고 가는 장면으로 작품이 끝난다.

미국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던 썸쑤앙을 향해 던지는 레홍의 다음과 같은 말에 썸쑤앙 역시 빨찌산 레홍이 외치는 민족해방 투쟁에 일조하게 된다.

레홍: 어찌하여 그렇게까지 되었니? (사이) 죽기를 두려워서 량심을 팔았구나. 이 준엄한 시기에 미국앞잡이로 팔렸구나. 형제자매들이 싸울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는가고 인민은 너에게 물어볼 것이다. 그때 무엇이라고 대답하겠니? 미국 강점자들을 도와주었다고 하겠니?

썸쑤앙: 그만 뒤.

레홍: 왜 너는 량심에 가책 되느냐?

썸쑤앙: 이런 상봉은 가다리지 않았어...

레홍: 넌 산송장이다.

이 말에 썬썬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방으로 들어가자 레홍은 “동무들, 나는 가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은 자유로운 월남에서 행복스럽게 살도록 할 것이요. 랑아, 너같은 아이들이 죽음이란 것을 모르고 살도록 할 것이다.”이라며 침략자를 향한 그의 투쟁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3. 마무리

지금까지 살펴본 중앙아시아 고려인 문학에 나타난 월남을 배경으로 창작된 작품에 나타나는 주제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월남 내전에 뛰어든 미국에 대한 비난하며 하루 속히 월남에서 떠날 것을 종용하는 내용이고, 둘째는 죽어가는 어린이와 여인들의 형상을 통해 무차별하게 양민을 학살하는 미군들에 대한 증오심의 표출이고, 셋째는 곤경에 처한 이들 월남 인민들을 돕기 위해 발벗고 나서자는 구호의 목소리이고, 넷째는 월남전을 통한 당시 한국의 참혹상 사회상을 폭로하는 것이고, 다섯째는 민족통일을 위한 베트남들의 지하공작 활동이다.

시 작품은 대부분이 당시 소련의 여론을 반영하고 있을 뿐 시적 긴장이 결여되고 문체가 다분히 구호적인 것이 특징이다. 이에 반해 소설이나 희곡 작품은 내용 구성이 단순하지만 나름대로 침략자 미국을 반대하며 민족통일을 위한 월남인민들의 영웅적인 무장 해방투쟁을 묘사하거나 월남 인민들을 위한 인류애를 표출하고 있다.

참고문헌

김필영(1998), “송 라브렌띠의 <기억>과 카작스탄 고려사람들의 강제이주 체험”, *Comparative Korean Studies* Vol. 4, Seoul: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Comparative Korean Studies.

김필영(2004), «소비에트 중앙아시아 고려인 문학사 (1937-1991)», 용인: 강남대학교 출판부.

Kim Iosif F. (1982), *Sovyetskiy koryeyskiy tyeatr* (Soviet Korean Theatre), Alma-Ata: Oner.

1965년부터 1973년까지 발간된 «레닌기치» 지면.

1965년부터 1973년까지 «레닌기치»에 게재된 문학 작품 목록:

시

정민, <베트남에서 손을 떼라>(1965)
박창익, <양끼들아 하루 바빠 물러 가라>(1965)
김남석, <월남 어머니>(1965)
리은영, <월남시초>(1965)
우제국, <밭에 든 돼지를 잡으라>(1965)
리진, <네가 누구든, 네가 어디서 살든>(1965)
김세일, <손을 떼라! 베트남에서, 콩고에서>(1965)
김세일, <월남 어린이들을 구원하자>(1965)
연성용, <싸우는 월남아>(1966)
연성용, <양키야 대답하라>(1966)
박세옥, <월남의 드리는 노래>(1967)
강태수, <그때는 오구말구요>(1968)
조해룡, <싸우는 월남이여>(1968)
김광현, <동무들이여, 형제들을 돕자>(1968)
김종세, <고무총 사수>(1969)
김창옥, <20세기의 깐니발>(1969)
조정봉, <월남 처녀의 맹세>(1971)
조영, <싸우는 월남>(1971)
허성록, 동시 <꼴라와 왈라>(1972)
김종세, <평화의 하늘은 왔다>(1973)

소설

조정봉, <도노르>(1968)

희곡

한진, <고용병의 운명>(1967)
김 니끼포르, <월남의 서광>(1968)
김 지마, <희망의 오솔길>(1971)